

## 피론학파의 회의주의적 방법론

20203152 최정민

피론학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선 피론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인물이고 그의 가치관과 주장을 이해하여야 한다. 피론은 헬레니즘 시대의 그리스 철학자로 피론학파의 사상적 시조이자 피론 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전 그리스 철학과 달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초연함과 태연함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강조했다. 이것은 헬레니즘 시기의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개념이었으나 피론은 그들과 구별되게 외부 대상에 대한 이해 불가능성과 판단 유보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그의 등장 이후 헬레니즘 철학계는 피론의 통찰을 수용하는 쪽과 거부하는 쪽으로 나뉘어 논쟁을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글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의 글을 통해서만 그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피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데 그를 최초의 회의주의자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정 반대로 그를 독단주의자로 보는 견해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현대 피론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전제는 그가 회의주의자이며 피론 주의가 사실상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 클레스는 ‘철학에 대하여’를 통해 피론의 수제자 티몬의 이야기를 남겼다. 이는 이미 사라졌지만 에우세 비오스의 ‘복음의 준비’에 나타난 피론에 대한 논의를 통해 피론이 이해 불가능성과 판단 유보라는 새로운 원리를 주장한 최초의 회의주의자임을 알 수 있다.

피론이 최초의 회의주의자 이자 피론 주의의 창시자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피론학파는 그가 세상을 떠나고 수 세기가 지나서야 탄생했다. 고대 피론학파의 창시자는 아카데미 학파의 일원이었던 아이네시데모스이다. 그는 안티 코오스에 의해 아카데미가 독단주의로 물들어 가자 그곳을 떠나 직접 새로운 학파를 세웠고 이것이 수 세기 이전의 회의주의자 피론을 시조로 하는 피론학파이다. 아이네시데모스는 세 가지 개념을 강조했는데 ‘반대 논변’과 ‘독단적 결정에 대한 거부’ 그리고 ‘사물의 현상이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다. 그는 서로 다른 감각의 표상들 사이에 존재하는 반대 논변과 철학자들의 이론적 논쟁 속에서 존재하는 반대 논변을 모두 강조했다. 우선 보이는 것들과 사유되는 것들이 반대 논변을 가지고 이들이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독단적 결정에 대한 거부 역시 독단적으로 강조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피론 주의의 논변은 곧 감각에 나타나거나 생각되는 것들의 기억이고 이러한 인식 과정에 나타나는 사물의 현상들이 삶의 기준이 되며 이것이 피론 주의가 탐구한 것이다.

피론이 피론 주의를 창조하고 아이네시데모스가 피론학파를 탄생시켰다면 이를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인물은 섹스투스 엠피리쿠스이다. 그는 고대 회의주의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남긴 철학자로 우리는 그의 저서들을 통해서 피론학파의 회의주의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는 회의주의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이는 것들과 사유되는 것들을 대립시키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대립되는 진술들’을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어떤 것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힘에 있어서의 평형’이라는 말을 믿을만함과 믿을 만하지 않음이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로 언급했다. 그는 이를 통해 상충하는 진술들 가운데 어떤 진술이 다른 진술보다 믿을만하다고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는 회의주의적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그는 회의주의자를 ‘독단적으로 믿음을 갖지 않고 스스로 느끼는 바를 보고하며 외부 대상에 대해 결코 확언하지 않는 철학자’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피론 주의적 회의주의 안에 독단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하지만 믿음 자체를 완전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는데 감각 표상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느낌 같은 비 독단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언제나 열린 태도를 가지며 독단적 믿음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피론학파와 그 회의주의가 발전하고 체계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회의주의자들은 독단주의자들에 대항하여 회의주의적 방법론을 구축해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회의주의자들이 사용한 논증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아이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증방식이다.

제1논증방식은 ‘생물들의 다양성에 기인한 논증’으로 생물들 간에 차이 때문에 감각 대상이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감각 표상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회의주의적 원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 대상이 우리의 감각 지각에 어떻게 현상하는지는 말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의 본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논증방식은 ‘사람들 간의 차이에 기인한 논증’으로 사람들은 신체적 정신적인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이 각 사람에게 상이한 영향을 행사하여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제3논증방식은 ‘감각기관의 다양한 구조에 기인한 논증’으로 인간이 가진 감각 표상들이 서로 다르고 다양하여 감각 표상들 안에서 일치된 현상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꿀이 혀에 닿으면 이것이 달다고 느끼지만 만약 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꿀의 본성이 달콤함인지 불쾌함인지 단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

제4 논증방식은 ‘주변 상황에 기인한 논증’이다. 여기서 주변 상황은 주어진 조건들을 뜻하며 지각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신체 상태의 차이가 외부 대상에 대한 감각 지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5 논증방식은 ‘위치와 거리 그리고 장소에 기인한 논증’으로 동일 한 탑을 멀리서 보면 둥글지만 가까이서 볼 때는 네모난 모양인 것처럼 한 감각 표상을 그 사물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6 논증방식은 ‘감각의 혼합에 기인한 논증’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감각기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 항상 어떤 것과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현상된다고 주장하며 외부 대상과 매개물의 혼합물이 어떠한 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외부 대상 그 자체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고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 논증방식은 ‘감각 대상들의 양과 구조에 기인한 논증’으로 존재하는 것이 동일하더라도 그것의 분량과 구조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감각 표상이 현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은을 잘게 부수어 놓으면 검은색으로 보이고 덩어리 일 때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외부 대상의 양과 구조가 실제적 모습을 불투명하게 하고 존재하는 것들의 본성에 관한 단언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8 논증방식은 ‘상대성에 기인한 논증’이다. 이 논증방식은 넓게는 10가지 논증방식 모두를 좁게는 1번째부터 7번째 논증방식을 포함하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의 본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불가능하고 그것이 어떻게 현상되는가에 대한 언급만 가능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9 논증방식은 ‘발생 또는 조우가 빈번한지 드문지에 기인한 논증’으로 대상과의 만남이 지

속적인지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어떤 경우에는 경이롭거나 값지고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간주된다고 주장했다. 가뭄이 들면 물이 보석들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가에 따라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본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10논증방식은 '행동 규범과 관습, 법률, 신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독단적 신념에 기인한 논증'으로 행동 규범과 관습, 법률, 신화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독단적 신념 등에 근거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다양하면서 불규칙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피론학파의 회의주의자들은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항상 반대 논변이 성립하고 이로 인해 대상의 본성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판단유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화에 도달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감각표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대상의 본성에 대한 어떠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 회의주의자들의 모습은 이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수동적이고 우유부단하며 결단력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수도 있다. 하지만 피론학파의 회의주의자들은 이런 모습을 오히려 긍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판단 유보가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믿고 이를 실천해왔다. 그리고 피론학파와 회의주의에 대해 알아갈 수록 회의주의가 겸손과 관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주의자는 사물과 현상의 본성은 이를 관찰하는 관찰자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사물과 현상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물과 현상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던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자신들이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했다. 또한 관찰자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관찰될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선과 악, 좋고 나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지금으로 부터 상당히 오래 전인 고대 그리스 시대임에도 이러한 개방적인 생각을 가졌다는 사실이 놀랍다.

피론학파와 회의주의에 대해 알아가면서 평소 나의 가치관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얻을 수 있고 가지고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해서 실제와 다른 방향으로 파악하고 판단 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있다. 또한 상황에 대해서 열린 생각을 가지고 개관적 관점에서 보려고 노력하며 선부른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항상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여론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론학파의 회의주의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아이네시데모스의 10가지 논증방식을 포함한 피론학파의 회의주의적 논증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의주의의 판단 유보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개념인데 어떠한 상황이나 사물 등에 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상황이나 사물에 대한 판단을 거부한다는 것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지금까지는 항상 중립을 찾고 이를 따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판단 유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었다. 중립이라는 것이 두 가지나 그 이상의 반대되는 의견들의 정확히 중간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모든 의견에서 벗어난 판단 유보라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용 가능한 중립입장이 존재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판단이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 유보를 통해서 절대적인 중립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자신만의 의견을 잃고 여론에 동조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도 있다.

우리는 사방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에서 살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얻은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리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 할지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층, 성별, 인종 간에 혐오도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천년전의 철학자가 제시한 회의주의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다. 회의주의를 통한 판단의 유보를 통해서 서로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는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도 판단 유보의 자세를 통한다면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피론학파와 회의주의에 대해 알아가면서 평소에는 철학에 대해서 거의 접할 기회가 없고 특히나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 철학에 비해서 대중 매체에 노출 되는 빈도도 적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과 관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